

## 2011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 鄭烈模

白水 鄭烈模(1895-1967)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많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월북 국어학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어학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새로운 면을 밝힌다기보다는 그간 남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를 정리하면서<sup>1)</sup>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鄭烈模의 삶

鄭烈模는 1895년 11월 1일 충북 보은군 회북면에서 長鬚 鄭氏 海濶의 三男으로 태어났다. 1911년 회인보통학교를 마치고 상경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니며, 주시경이 세운 조선어강습원에서 문법을 공부했다. 1912년 3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제5회), 1914년 3월에 고등과(제2회)를 수석으로 수료하였고, 1915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수료하였다. 이후 보통학교 교원에 임용되어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교편을 잡았다. 1921년 3월 일본 早稻田大學 고등사범부 국어한문과(일본어한문과)에 입학하여 1925년 3월에 졸업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일본의 문법학을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스승 주시경의 문법론과 다른 독자적인 문법론을 수립할 수 있었다.

1925년 4월 귀국한 그는 본격적으로 조선어 연구에 뛰어들었다. 1925년 귀국하자마자 중등학교 조선어교원으로 부임하였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6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어학회의 한글강습회에서 이병기, 최현배, 신명균, 권덕규 등과 함께 강사로 활약했으며, 1927년 2월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을 창간하는 데에 관여하였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었을 때는 편찬위원이 되었고, 사전 편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맞춤법 제정위원, 표준어 사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4월에는 김천고등보통학교의 교무주임(교감)으로 자리를 옮겨 1932년 교장이 되었고 10여 년 간 조선어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해 수감되었으며, 1944년 9월 30일 공소소멸로 석방된 후 김천에서 칩거생활을 하였다.

해방 후 정열모는 중도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족자주연맹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1948년 4월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sup>2)</sup> 그러나 그의 주된 활동 범위는 교육·문화계였다. 조선어학회 소속으로 한글 보급운동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종교의 지도 인사로서 대종교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46년 3월 국학전문학교의 초대교장, 1947년 6월 흥익대학관의 관장, 1949년 6월 흥익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 교육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북<sup>3)</sup>하여, 1955년 10월 김일성대 언어학과 교수, 1958년 과학원 언

1)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에서는 鄭烈模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鄭烈模의 삶과 관련한 내용은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에 기대어 기술했음을 밝힌다.

2) 문화인 108인 남북협상지지 서명에 참여한 어문학자로는李克魯, 李秉岐, 洪起文, 鄭寅承, 金炳濟, 柳烈, 柳應浩 등이 있다.

3) 그가 북한으로 가게 된 것이 자진 월북인지 남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중도적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함께 활동했던 이극로, 유열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월북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을 고려한다면 그의 북행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학 연구실 교수, 1964년 과학원 후보원사, 1965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실 교수, 후보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 일제강점기 국어학 연구 활동

1926년 이후 조선어학회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한글강습회를 열었다. 이는 한글을 배우고 익히자는 문맹퇴치운동과 맞물려 민족문화운동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鄭烈模는 최현배, 이병기, 권덕규, 신명균 등과 함께 조선어강습에 나서는데, 그는 최현배와 함께 文法 부문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이때부터 조선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하고, 조선어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어철자법 통일 문제는 조선어학회의 주요 과제였는데, 조선어학회가 철자법 통일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1928년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린 “제3차 교과서 철자법 제정을 위한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조선어학회는 철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건의서의 요지는 철자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문법 원리에 입각한 형태주의 철자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鄭烈模는 신명균, 이병기 등과 함께 이 건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1930년 형태주의로의 철자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는 이 시기 한글철자의 원리를 규명하고 한글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가 자신의 문법론을 체계화하여 발표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1927년 [한글]에 6회에 걸쳐 “朝鮮語文法論”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의 문법체계가 온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松下大三郎의 [標準日本文法](1924)을 따라 조선어문법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鄭烈模의 독자적인 문법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국어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그는 논문에서 “나의 獨創的 偏見이 안이라 內外 文法學을 參互하여 그 合致된 精神을 取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일제강점기 동안 발표했던 조선어학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 1926.05. “正音頒布八回甲을 當하야.” 「新民」13.
- 1926.11. “우리글 普及은 敎育으로부터.” 「新民」19.
- 1926.11. “經濟上으로 본 우리글.” 「朝鮮日報」11월 13자.
- 1926.12. “文化上으로 본 우리말.” 「新民」20.
- 1927.02. “音聲學上으로 본 正音.” 「한글」1-1.
- 1927.03-04. “朝鮮語研究의 正體는 무엇?” 「한글」1-2/1-3.
- 1927.04-1928.10. “朝鮮語文法論” 「한글」1-3~2-2.(6회)
- 1927.05-11. “言語와 文々字” 「한글」1-4~1-7.(4회)
- 1927.05. “安廓君에게 與함.” 「東光」.
- 1927.07. “우리 글을 옳게 적자는 주장을 가지고.” 「東亞日報」7월 6일자.
- 1927.10. “이날을 기림하야.” 「朝鮮日報」10월 24일자.
- 1927.12. “한글 정리 반대자를 위하여.” 「別乾坤」.
- 1928.01. “國語와 方言.” 「한글」2-1.
- 1929.08. “한글 綴字 原理에 對하야.” 「新民」52.
- 1929.09. “周先生과 그 周圍의 사람들.” 「新生」2-9.

1932.01. “方言矯正에 努力이 必要.” 「朝鮮日報」1월 2일자.

1933.03. “대명사에 대하여.” 「한글」7.

1935.06. “「아니」의 格位는 무엇?” 「한글」24.

국어학의 연구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는 청소년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들을 위한 동시, 동화를 비롯해 다양한 수필작품을 남겼다. 특히 청소년들의 쓰기 교육을 위해 한글 문예독본을 남긴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29.04. 「現代朝鮮文藝讀本」권1 殊芳閣.

### 해방 이후 국어학 연구 활동

해방이 되자 鄭烈模는 문법서를 출간하는 등 문법 연구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인 한편, 1920년대부터 모색해 온 자신의 문법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1927년 발표한 조선어문법론에서 자신의 문법체계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후 문법론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문법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1946년에 나온 [신편고등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46년 [신편고등문법]을 출간하여 자신의 문법론의 전모를 세상에 알렸다. 이 문법론은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 제3유형의 문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주시경문법에 松下文法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4)</sup> 그는 자신의 문법론이 정립된 경위를 이 책의 머리말에 상세히 밝히고 있다.

“내가 이십년전에 서울 중등학교에 재직할 때 생도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책임을 가져 한편으로는 문예독본의 재료를 모으고, 한편으로는 문법교재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일본 국학원대학 마쓰시다씨의 표준일본문법이란 책을 읽어 그때까지 내가 가진 문법상 의견과 부합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성스러이 읽어 얻은 바가 많았으니, 이 책의 조직은 전적으로 그를 모방한 것이다.

나의 국어연구의 벽은 한힌샘스승으로 말미암아 짚이 트고 히못 김두봉님으로 말미암아 뼈가 생기고 주산 신명균님으로 말미암아 살이 붙었다고 스스로 믿는 바 인데, 내가 이 책에서와 같은 새 안을 세운 것은 선배의 지은 길에 배반함이 아니라, 선배의 뜻을 받아 새길을 열고저 함이니...”

그는 형태소 단위(낱뜻)와 단어 단위(감말)를 구분하면서, 단어 단위(감말)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여 5품사(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설정하였다.<sup>5)</sup> 철저하게 단어의 문법적 기능에 중점을 둔 분류가 특징적이다. 특히 조사를 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명사의 격(빛)과 동사의 활용(빛)을 같은 차원으로 보았다. 이 부분이 주시경의 문법과도 다르고 최현배의 문법과도 다른 鄭烈模 문법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북한 규범문법의 확립 과정에서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4) 金敏洙(1980:296)에서는 鄭烈模의 문법을 제3유형의 문법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문법은 周時經系로서 그 바탕 위에 색다른 松下文法을 적용한 것이라 했다.

5) 물론 그의 문법에서는 명사(본명사/수사, 대명사), 동사(동작동사/존제사, 지정사, 형용동사), 부사(접속사) 등과 같이 품사의 소분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월북하기 이전까지 그가 발표한 국어학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46.03. “조선말 동사의 피동과 사역.” 「한글문화」1.

1946.04. “우리말.” 「한글」94.

1946.04. “한짜폐지에 대하여.” 「大潮」1-2.

1946.10. 「신편고등국어문법」서울: 한글문화사.

1947.1-3. “새로 읽은 향가.” 「한글」12-1.

1947.11. “여성과 한글.” 「새살림」1-7.

1948.09. 「초등국어문법독본」서울: 고려서적.

1948.09. 「고급국어문법독본」서울: 고려서적.

앞서 일제강점기에 조선 청소년들의 쓰기 교육을 위해 한글문예독본을 남긴 것은 소개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를 개정하여 한글문예독본을 두 권으로 발행한다. 그가 [신편고등국어문법]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그는 우리말 교육자로서 문예독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6.02. 「한글문예독본 첫권」신흥국어연구회.

1946.06. 「한글문예독본 담권」신흥국어연구회.

### 월북 이후 국어학 연구 활동

鄭烈模는 1950년대 진행된 북한 국어학계의 문법 논의를 주도해 나갔던 국어학자 중 하나였다. 특히 북한 국어학계는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는데<sup>6)</sup>, 당시의 논의는 교착어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鄭烈模는 이 논의에서 토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었다. 북한의 토 논의는 토의 형태적 특성 즉 교착적 성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鄭烈模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출판된 북한의 규범문법서인 「조선어문법」<sup>1)</sup>에서는 이전의 문법서와 달리 토를 독립 품사가 아닌 문법적 접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 국어학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중반 이후 그는 국어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썼다. 토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문장론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하였으며, 문체론<sup>7)</sup>에 대한 영역에까지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들은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에서 보여준 자신의 문법론을 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체론과 관련한 논의는 그가 일제강점기부터 청소년의 쓰기 교육을 위해 문예독본을 저술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956.12. “조선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견해.” 「조선어문」6.

1957. 「국어문법(인민학교 제2.3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6) 1958년 “조선어형태론의 특성에 대한 학술토론회”와 1963년 “조선어문법구조연구에서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학술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토의 성격 문제였다.

7) 1960년대 중반 북한 국어학계에서는 문체론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를 선도한 인물이 김수경이었다.

- 1957.04. “체언술어에 나타나는 ‘이’의 성격.” 「조선어문」2.  
 1958.01. “조선어의 ‘토’들 1.” 「조선어문」1.  
 1958.03. “조선어의 ‘토’들 2.” 「조선어문」2.  
 1959.01. “문장론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1.  
 1959.07. “조선어에 복합문이 있는가?” 「조선어문」4.  
 1960.03. “조선어에 침투된 한자어에 대한 문제.” 「조선어문」2.  
 1960.11. “조선어의 문장론에서 논의되는 ‘구’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과 복합문의 유형.” 「조선어문」6.  
 1960.09. “상황어의 구조 및 어순.” 「말과 글」  
 1961.12.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 「말과 글」  
 1963.05. “조선어의 문장론에 제기된 몇 가지 문제의 역사적 고찰.” 「조선어학」2.  
 1963.08. “진술성.” 「조선어학」3.  
 1963.11. “통합관계와 그 성분.” 「조선어학」4.  
 1964.08. “말쓰기에서 표현성을 찾기 위하여 제기한 이런저런 문제.” 「조선어학」3.

또한 향가를 비롯하여 고대 국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한 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하였다. 고대에 대한 관심은 1947년 향가에 대한 글을 발표할 당시부터 나타나는데, 월북 이후 국어학 연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년에 향가와 고대국어에 대한 연구서를 2권을 출간한 것은 그의 학문적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 준다. 古語 관련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 1954.08. 「신라향가주해」국립출판사.  
 1959.01. “고전 해독에서 주체성을 살리자.” 「조선어문」3.  
 1962.08.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향약집성방].” 「조선어학」3.  
 1965.11. 「향가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조선어 고어 역사」고등교육도서출판사.

※ 참고로 한국어학회의 「한국어학」 17집에 ‘자료 발굴과 소개’에 나와 있는 ‘정렬모’ 부분을 첨부한다<꾼찌비치·심비르찌바의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라치코프와 마주르의 개인 문헌 보관 자료 참조,” 「러시아 한국학」(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 센터 연감, 제2권, 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판부, 2001년)>.

정렬모(鄭烈模)[1/5] 대학에서 조선어 학부 연구원, 여러 조선어문법의 작가. 1947-48년 서울에서 그는 [신편 고등 조선어 문법]을 출간하였다. 우리가 있었을 때, 그는 조선 중학생 교과서에서 ‘통사론’ 분야와 북조선 아카데미 출판의 조선어 문법에서 ‘통사론’ 편을 연구하였다.

정렬모는 주시경 선생의 학생이었다. 18세부터 조선어를 연구하였다. 대학에서 그의 첫 연구 관심 분야는 통사론이었다. 향가 노래의 해석 [신라 향가 주해](1954)와 [향가 연구](1961)이 발표되었다. 그는 주시경 선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조선어문]과 [말과 글]에서 다른 주제로 발표하였다. 가사 장르의 노래와 관련된 것들을 출판하면서, [조선 고전 문학 선집] 시

리즈 편찬에 참여하였다. 1961년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의 중앙 위원회 회원이 되었다.

<參考文獻>

- 姜信沆. 1996. 「國語學史」(增補改訂版) 서울: 普成文化社.
- 고영근 외. 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서울: 박이정.
- 金敏洙 編. 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4권 서울: 녹진.
- 金敏洙. 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 김영향. 권승모 편. 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유목상. “백수 정열모 선생.”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서울: 한글학회.
- 이상혁. 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6.
- 정기호. 2001. 「정열모 말본 연구」 부산: 육일문화사.
- 최경봉. 2005.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 최경봉 외. 2007.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채록 자료)<sup>8)</sup>.
- 崔起榮. 2003. “白水 鄭烈模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25.
- 최호철. 2002. “자료 발굴과 소개: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한국어학」17.

---

8) 이 자료집에는 金敏洙, 柳穆相, 李康魯, 李應百, 정재도 등 국어학계 원로 5인의 구술이 녹화되어 있다. 국사 편찬위원회 자료실에서 시청각 자료로 열람할 수 있다.